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논란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Semiotic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Sport Stars' Bullying During their School Days

전상완(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이은석(가천대학교 교수) · 박한솔**(가천대학교 연구원)
Jeon, Sang-Wan · Yi, Eun-Surk · Park, Han-Sol(Gacho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의 언론 보도를 Saussure와 Barthes의 이론으로 기호학적 분석하여 언론 속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국종합일간지 언론에 명시된 언론사인 '세계일보'를 비롯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으로 선정하였고, 분석 대상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 전개 과정을 시간적 흐름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사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계열체 분석을 통해 주제 간의 대립적 관계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분석된 결과물을 토대로 신화 분석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서사구조는 발단 및 전개를 시작으로 절정, 결말의 단계로, '사건 논란'을 시작으로 '징계 및 처벌', '은퇴 및 복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대립구조',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옹호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대립구조'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속 피해자의 아나키즘',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화와 풍토를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스포츠 폭력 문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스포츠선수, 학교폭력, 논란, 언론 보도, 기호학적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deology in the media and provide implications by semiotically analyzing media reports of school violence controversy in the sports world with the theory of Saussure and Barthes. We selected 'Segye Ilbo', a media company specified in the national daily newspaper press, 'Chosun Ilbo', 'Kyunghyang Shinmun', 'Kookmin Ilbo', and 'Naeil Shinmun', and the period of analysis was from February 2021 to February 2023. It was set up to 28 days. I tried to identify the narrative structure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as a time flow through the integrated body analysis. Next, I tried to analyze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and its meaning through phylogenetic analysis. Finally,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myth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rrative structure is in the order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climax, and ending, starting with 'incident controversy', followed by 'discipline and punishment', and 'retirement and return'. Second,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perpetrator and victim',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the third club and public opinion', and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the opposing position and the advocating position looking at the perpetrator' were found. Third, 'anarchism of victims in sports' and 'ethical relativism in sports and general society' appear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changing the endemic culture and climate of sports,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paradigm for the problem of violence in sports.

Key Words: Athletes, School Violence, Controversy, Media Reports, Semiotics Analysi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4352)

** hansol0115@gachon.ac.kr

· 논문제출일: 2023.03.31. · 논문심사일: 2023.05.08. · 논문완료일: 2023.05.23. © 2023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1. 서론

최근 ‘더 글로리’파트 2가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OTT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더 글로리’가 단 3일만에 1억 2446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모든 언어권을 통틀어 42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김은형, 2023.03.15.). ‘더 글로리’가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데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논제가 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다룸으로써 시류에 적절한 소재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복수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극적인 부분을 가상에서 풀어낸 것이 드라마의 화제성을 부각시켰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학교폭력의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에 처분이 달리 작용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방관자 책임을 묻게 된다. 일방적인 따돌림이 아닌 서로 유사한 책임이 있을 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피해 정도와 원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폭력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학교폭력은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2021년 초, 국내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미투 운동’ 용어에서 파생된 학폭투 운동이 초래되었다.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자 배구 쌍둥이 자매 사건이 초래되면서 프로배구뿐만 아니라,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태까지 번졌다. 과거 스포츠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의 처벌이 경미하게 치러진 점이 다시금 논란이 되어 논의되었다. 예컨대, 2018년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금 논란이 되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는 등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들이 오랫동안 질타받는 이유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안우진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이 고발되고 50경기 징계를 받은 이후 한 네티즌은 “50경기 출장 정지는 징계가 아닌 휴식을 주는 것 같다. 투수들은 대부분 팔꿈치에 무리가 있기에 1년을 쉬고 재활하는 경우가 많다. 재활시키면서 50경기 징계 기간을 채우면 선수를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김규리, 2021.02.17.). 또한 세간의 이슈였던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한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볼 수 없어 청원하게 되었다”며 가해 선수에 대한 제명과 지명철회 등을 촉구하였다(김규리, 2021.02.17.). 이처럼 스포츠계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시선은 더욱 거센 비판으로 다가왔다. 스포츠계 학교폭력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가 다양한 이슈를 생산함과 동시에 문제에 대한 갈등을 전면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김용은, 문보라, 김범식, 2014).

언론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Fill, 1995). 여론을 형성하며 대중의 성향과 관심을 널리 알림으로써 언론은 유행을 양산하는 기능을 한다(Fill, 1995). 또한 언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의 산물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텍스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으로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용은 외, 2014).

이에 언론은 스포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의 다양한 담론을 재생산하고,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남상우, 2021). 대중의 인식 속에서 스포츠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데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oakley, 1990). 따라서 스포츠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맺는 언론 보도는 스포츠의 사회 전반적인 맥락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학교폭력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고, 여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달리 말해, 언론 보도가 기호학적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맥락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기호학을 활용한 연구는 영상물로 다룬 연구(김지영, 2010; 김용은, 나동규, 김주희, 남미경, 김범식, 2013; 김용은, 도은나, 문보라, 2016; 문보라, 최문정, 서원재, 2015; 백선기, 손돈, 2012; 송치만, 2019; 송치만, 2010; 송치만, 김진휘, 2019; 장승현, 이근모, 이남미, 2010)로 주로 스포츠 영화나 광고의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었고, 그 외는 신문 등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스포츠 윤리적 문제를 다루어 기호학으로 분석한 연구(송치만, 2005; 김용은, 김준, 2021)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aussure와 Barthes의 언어 기호론을 토대로 스포츠의 학교폭력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의 윤리적 문제를 기호학적 관점과 이론적 체계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기호론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학문적 틀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이경숙, 2016).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시적 의미를 밝히는 데 Barthes의 신화만큼 정합적인 방법론이다(김정효, 2023).

본 연구는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Saussure와 Barthes의 이론을 통해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함축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언론 속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합체 분석(syntagme)을 통해 전개 과정을 시간적 흐름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사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열체 분석(paradigme)을 통해 주체 간의 대립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항대립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분석된 결과물을 토대로 신화적 분석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규명함으로써 여론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보도의 서사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스포츠 학교폭력 논란에 주체 간의 대립구조와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보도 속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가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화와 풍토를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스포츠윤리와 스포츠 폭력 문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기호(記號)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 표상, 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개념, 수식, 명제, 추론 등이라 일컫는다. 기호학(記號學, semiotics)은 언어학에서 간단한 신호에서부터 복잡한 언어까지 이르는 모든 기호를 일반적 이론과 그 응용을 연구하는 과학의 총칭이다(이경숙, 2016). 즉, 기호학은 모든 의사소통에 기호가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언어는 가장 보편적인 기호체계로 기호를 체계화한 과학이라 볼 수 있다(이경숙, 2016). 따라서 기호는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기호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어 인간의 상징체 구조와 이를 재현하는 사상성을 탐색하는 학문으로 간주된다(임재문, 2010). 달리 말해, 인간이 사용하는 기호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신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어학 연구를 통해 기호학과 구조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Saussure는 기호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도구라 하였다(Jonathan, 1998). Saussure는 인간의 언어활동을 언어(langue)와 발화(parole)로, 기호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는 공시성(synchrony)과 통시성(diachrony)으로 구조화 하였다(이경숙, 2016). Saussure & Sechehaye(1966)에 따르면 기호의 특성을 기표와 기의 간의 자의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자의적이란 기표와 기의를 연결하는 관계를 규명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Saussure는 기호를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제반 사회현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Barthes는 신화를 한 사회나 문화가 만든 일종의 이데올로기라 표명하는데(정승원, 2017), 그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가치체계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신화란 ‘기호’의 속성이 잠재되어 있고,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일종의 관습을 뜻한다(하오화웨이, 쉬자오이, 팡시, 최원호, 2022). 기호가 표면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전병준, 정정호, 2022). 또한 Barthes의 신화는 의사소통의 체계이자, 메시지이며 하나의 대상이라기보다 의미작용으로 간주한다(김정효, 2023).

따라서 기호학은 분석된 텍스트를 통해 내포한 가치와 기호의 함축적 의미를 나타낸다(Holden et al., 2021). 이를 통해 언론에서 나타난 서사 분석이 사건의 결과 혹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Barthes, 1981).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 대상 설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표한 한국언론연감(2018)에 의거하여 언론사를 선정하였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전국종합일간지 언론에 명시된 언론사인 세계일보를 비롯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스포츠계에 학교폭력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BIG Kinds를 활용하여 언론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학폭’을 기본 검색어로 설정하였으며 ‘송○○’, ‘심○○’, ‘이○○’, ‘이○○’, ‘안○○’ 등 사건 주요 인물을 각각으로 검색하였

고, '복귀', '이적', '징계' 등을 검색함으로써 추가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기사 수는 137건이었으나, 1차적 표집을 통해 연구와 관련이 없거나 재인용된 중복된 내용을 모두 제외하여 총 46건을 분석하였다. 세계일보 18건, 조선일보 10건, 경향신문 7건, 국민일보 9건, 내일신문 2건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사 수

	세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합계
기사 수	18개	10개	7개	9개	2개	46건
(%)	(39.13%)	(21.74%)	(15.22%)	(19.57%)	(4.35%)	(100%)

표 2. 기사 자료

번호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1	20230227	세계일보	양다훈	'소신 발언' 논란에 추신수 "사람 생각 경험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2	20230215	조선일보	문지연	"안우진 있어야 세대교체냐" 박찬호, 추신수 논란에 던진 한마디
3	20230124	조선일보	박선민	추신수 지지한 안영명 "파장 예상하고도 솔직 발언, 진짜 선배"
4	20230123	세계일보	양다훈	추신수 '학폭 논란' 안우진 두둔 "박찬호 다음 재능"
5	20221110	국민일보	천금주	'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 제외 "최동원 정신에 위배"
6	20221028	조선일보	정재빈	국내 복귀 추진 이재영, 학폭 피해자에 연달아 법적대응
7	20221019	경향신문	이정호	페퍼 '이재영 면담' 논란 김형실 감독 "자충수 들 이유 없다"
8	20221019	조선일보	최혜승	이재영 복귀설에 팬들 "짧은 패기? 진짜 패는 선수 데려오면 어찌냐"
9	20220921	국민일보	노혜진	두산 이영하, 첫 공판서 학폭 혐의 부인 "소명 가능"
10	20220216	조선일보	최혜승	학폭 폭로자 무혐의에...현주엽 "이의신청, 꼭 진실 밝힐 것"
11	20211115	조선일보	문지연	그리스 간 지 한 달 만에 쌍둥이 언니 이재영만 돌아왔다, 왜?
12	20211023	국민일보	이주연	"해맑게 브이" 훨훨 나는 이다영, MVP 수상
13	20211017	국민일보	나경연	도망치듯 떠난 쌍둥이 자매 엄마는 "고개 숙이지만"
14	20211007	세계일보	김형환	그리스 매체 "이재영 다영 자매 그리스 가기 전 기자 간담회"
15	20210923	세계일보	최형창	[단독] 영구 박탈→10년 징지 스포츠 '학폭' 징계 수위 슬쩍 낮춘 정부
16	20210628	경향신문	이정호	"이재영 이다영 선수 등록" → 입장문 돌연 "취소" 갈팡질팡 흥국생명
17	20210624	세계일보	서필용	이재영 이다영 '무기한 출전징지' 라더니
18	20210623	세계일보	정필재	학폭 전력 선수, 태극마크 못단다
19	20210612	국민일보	천금주	'학폭' 이다영, 그리스행? 협회 "이적동의서 발급 안 돼"
20	20210407	내일신문	송현경	[문화체육관광부-학교폭력] 선수 간 학폭 대책 마련... 선발·대회참가 제한
21	20210415	경향신문	이성희	학교폭력 가해행위 이력, 학생부서 지우기 어려워진다
22	20210415	내일신문	안성열	"가벼운 처벌로 학폭 재발 이어져"
23	20210317	국민일보	천금주	현주엽 고교 짝꿍 "일탈 말리던 친구" 진실공방 계속
24	20210315	세계일보	한윤중	프로야구 선수 학폭 폭로한 피해자 "눈물 흘리며 용서 구해와 화해, 이젠 팬"
25	20210304	경향신문	송현숙	[경향의 눈] 쏟아지는 미투, 학폭 잔혹사
26	20210224	세계일보	조성민	운동선수 선발 때 '학폭 이력' 확인한다
27	20210224	경향신문	이용균	학교폭력 영구 퇴출 가능 제도화 정부 대책 나왔다
28	20210224	경향신문	박재영	쉿! 이겨야 대학 갈 거 아냐 승리 지상주의가 덮어준 학교폭력

번호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29	20210223	조선일보	송원형	남배구 박상하 은퇴선언 “학창시절 친구 후배 때린 것 맞다”
30	20210222	국민일보	이동환	삼성화재 박상하, 뒤늦게 학폭 인정 후 은퇴 선언
31	20210220	세계일보	박지원	영혼 말살하는 '학교 폭력' 제대로 된 처벌 못 하는 사회 [뉴스+]
32	20210219	경향신문	최희진	남자배구로 불똥 튄 스포츠계 '폭력 미투'
33	20210219	세계일보	김경호	이재영 이다영 봐주기?...체육회 “무심코 저지른 학폭”
34	20210218	세계일보	서필웅	폭력 일상화된 학생 선수들 시스템 바뀌야 사라진다
35	20210217	세계일보	유지혜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할텐데 ” 지울 수 없는 상처 ‘학폭’
36	20210216	국민일보	문지연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지도자 자격까지 다 박탈”
37	20210216	세계일보	최형창	文 대통령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 폭행 안타깝다”
38	20210216	조선일보	오경목	배구 학폭 주장에 “거짓말 아냐?” 피해자 측 “2차 가해 멈춰달라”
39	20210215	세계일보	-	[사설] 체육계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 실패 파악부터 서둘러야
40	20210215	세계일보	-	홍국생명 '학폭'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41	20210215	조선일보	김동하	이낙연, 배구계 학폭 논란에 “국민 분노... 엄정 대응”
42	20210215	세계일보	서필웅	닷새 만에 징계 받았지만... '프로배구 학폭' 일파만파
43	20210213	세계일보	김경호	학폭으로 얼룩진 배구계 왜 이러나 'XX 터진 놈' 이번엔 남자부
44	20210211	국민일보	김용현	꼬리문 '악재' 여자프로배구 뒤숭숭
45	20210211	세계일보	최형창	'학폭' 논란에 미스트롯 진달래는 하차... 이재영·이다영은 어떻게?
46	20210210	조선일보	이세영	女배구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 “부모 욕하고 칼로 협박했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연구 분석과정은 첫째, 통합체 분석으로 언론 보도의 내재된 서사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통합체는 계열체에 선택한 기호들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호 복합체로써 코드, 메시지, 이야기, 역사 등을 뜻한다(김경용, 2007). 통합체 분석은 이야기를 형성하는 사건의 결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안선경, 2002).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범주화하고, 전체적인 서사구조와 그 방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둘째, 계열체 분석으로 서사구조에서 기인한 주체의 이항대립구조를 파악하였다. 계열체는 공통성을 지닌 기호의 범주를 의미하고, 계열체로부터 특정 기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행위가 곧 의미가 된다(김정효, 2023). 또한 다른 기호들과 서로 대립함으로써 대립적 의미를 이룬다. 이를 통해 스포츠 학교폭력 논란 보도에 대한 텍스트 속 의미를 발생시키는 이항대립을 밝히는 것이다(김용은 외, 2013).

셋째, 신화 분석에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데올로기를 규명하였다. 신화 분석은 신화가 자연화 되는 2단계를 의미 작용하는데(Fiske, 2010), ‘외시(denotation)’와 ‘공시(connotation)’의 개념을 통해 의미 작용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기호학적 접근방법인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 신화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과정과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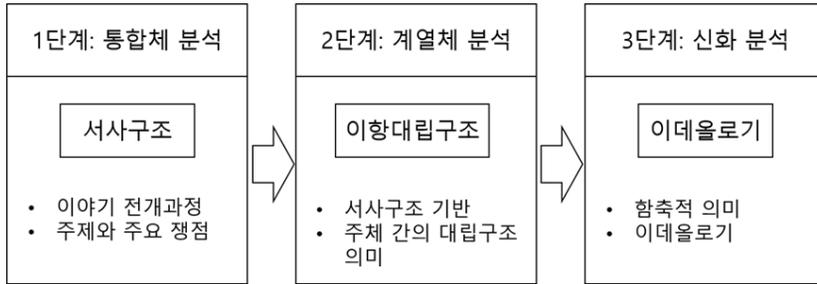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방법 과정과 절차

본 연구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협의와 다각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3인과 스포츠윤리학 박사 1인, 스포츠사회학 박사 2인 등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료 집단과 자료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오류나 편견을 배제하였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 2회로 총 16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 보도의 서사구조: 통합체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기사 자료를 통합체 분석을 통해 사건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들을 범주화시켰다. 서사구조의 전개과정은 발단 및 전개인 사건 논란 시작, 절정 단계인 선수의 징계 및 처벌, 결말 단계인 선수의 은퇴 및 복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 논란 시작은 2개, 선수의 징계 및 처벌은 1개, 선수의 은퇴 및 복귀는 2개 국면으로 구분하였다. 전개 과정의 단계적 도식화는 <그림 2>와 같다.

이처럼 3단계의 전개 과정과 5개 범주화된 국면을 사실 위주의 객관적 행동과 평가 중심으로 주요 주제를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시간적 흐름에 의해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맥락과 연계를 기반으로 단계를 구분하였고, 서사구조를 탐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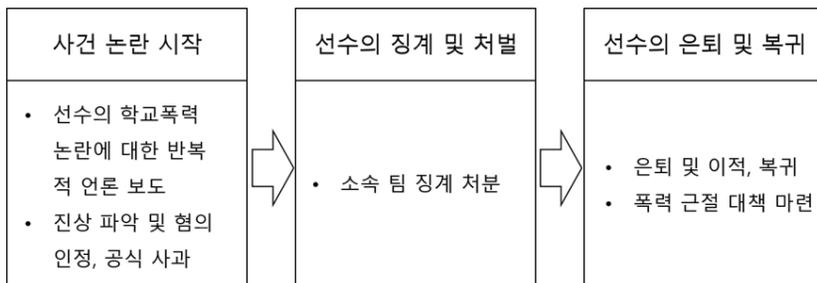


그림 2. 서사구조

1) 발단 및 전개: 사건 논란 시작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의 논란 시작에 따른 서사구조는 두 가지의 국면으로 구성하였다. 과거에 특정 선수가 저지른 학교폭력이 대두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의 경우, 특정 스타 선수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큰 논란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된다(김용은, 김준, 2021). 첫째, 과거 특정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건이 이슈화되었다. 둘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진상 파악이 이루어졌다. 팬들은 방출하였고, 가해자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피해자들은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전말을 밝혔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은 일파만파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10일 오후 ○○○○ 구단과 이○○·이○○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이세영, 조선일보, 2021.02.10.).

프로배구 V-리그에서 또 하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출신 센터다. 19일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됐다. (세계일보, 2021.02.15.).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학년 형들이 집합시켜서 때리고 맞는 게 일상이었다"고 떠올린 글쓴이는 노래를 부르라는 선배의 말을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세계일보, 2021.02.13.).

2) 절정 : 선수의 징계 및 처벌

선수의 징계 및 처벌의 서사구조는 한 가지의 국면으로 구성하였다. 언론은 주로 구단과 협회, 연맹 측의 징계와 제재, 재판부의 법원 선고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구단은 해당 소속의 선수인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이○○은 소속 구단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및 출전정지를 결정하였고, 지도자 자격 또한 박탈당했다. 송○○·심○○은 잔여 경기에서 제외시켰다.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선수운동 포기원을 제출하였고,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프로배구 학교폭력 사태'를 촉발한 쌍둥이 자매가 닷새 만에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 15일 이들의 무기한 출장 정지를 결정했고, 같은 날 국가대표팀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배구협회도 이들을 국가대표 선발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했다(서필용, 세계일보, 2021.02.15.).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프로배구 ○○○○ 이○○·이○○ 쌍둥이 자매에 이어 ○○○○○소속 송○○·심○○도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당했다. 이들은 V리그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지도자 자격마저 박탈당해 앞으로 배구 코트를 다시 밟기 어려울 전망이다(문지연, 국민일보, 2021.02.16.).

OK저축은행도 논란을 빚은 송명근과 심○○이 올 시즌 잔여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서필용, 세계일보, 2021.02.15.).

3) 결말 : 선수의 은퇴 및 복귀

선수의 은퇴 및 복귀의 서사구조는 두 가지의 국면을 구성하였다.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가해 선수들은 은퇴하거나, 이적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고, 이 같은 사실을 중점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첫째, 가해 선수들은 상위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선수로서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자, 은퇴 혹은 이적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이○○은 소속 구단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및 출전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받아, 루마니아와 그리스로 이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은 구단을 임의탈퇴하였고, 송○○은 피해자와 합의 끝에 다시 복귀하였다. 둘째, 체육계와 구단 측은 스포츠 학교폭력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 근절 대책을 공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의결하였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선수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에 제동이 걸린다고 공표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한 기관과 단체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학교폭력 연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여 원천 봉쇄,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징계규정 정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전개 등의 대책을 실시하였다.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 센터 박○○가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결정했다(이동환, 국민일보, 2021.02.23.).

이후 자매는 함께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했다. 이○○은 부상으로 귀국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생 이○○은 루마니아 리그로 이적했다(정재빈, 조선일보, 2022.10.28.).

이날 심의·의결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개선 방안)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를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송현경, 내일신문, 2021.04.07.).

2. 서사구조의 주체들의 대립구조와 의미: 계열체 분석

서사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체 간의 대립구조를 계열체 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이항대립은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호 의미를 본래의 의미가 아닌 것과 차이에 의해 제 모습을 나타낸다(김희경, 2010). Levi Strauss에 따르면 문화·자연, 남성·여성, 흑·백, 선·악, 위·아래 등을 이항대립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 생산의 기초가 된다(김희경, 2010). 이항대립의 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대립적 관계로 나타날 때 의미를 생성한다(김경효, 2023). 또한 이항대립은 무시간적 원리인 공시성을 가지며, 인간의 의식 작용이 만들어 낸 문화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체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이항대립 주체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각각 주체들은 갈등 관계가 나타났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해 선수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에서 중심인 가해 선수와 피해자의 갈등 관계에 따라 대립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청소년기 시절에 가해 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글을 올리며, 사건의 시작됨과 동시에 갈등과 대립구조를 형성하였다. 가해 선수의 학

교폭력 논란에 대해 언론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범죄 행위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언론은 가해 선수의 범죄에 관해 가해 선수의 소속을 저격하며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는 보도를 동시에 생산하였다. 가해 선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훼손 하였다고, 법적 대응할 것을 주장하는 보도도 존재하였다. 언론은 선수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였고, 학교폭력 고발이 끊임없이 생산되자 개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와 환경 탓으로 돌리는 보도가 잇따랐다. 가해 선수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시적 표현과 내재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대립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언론은 가해 선수와 피해자의 표면적인 모습을 지시적으로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표현에 대한 의미를 상징화하여 이항대립구조와 대립적 의미가 형성되었다. 가해 선수는 주로 선수 실명, 가해자, 현직 유명선수, 국가대표, 구단 소속 선수, 고소인 등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는 실명, 피해자, 제보인, 피의자 등으로 표현됨으로써 대립과 동시에 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되었다. 가해 선수의 내재적 의미는 범죄 행위, 징계, 처벌, 무책임한 행동, 인정, 혐의 부인 등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법을 위반한 가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갈등구조도 존재하였다.

표 3. 가해 선수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와 의미.

구분	지시적 표현	내재적 의미	대립적 의미
가해 선수	선수 실명, 가해자, 현직 유명선수, 국가대표, 구단 소속 선수, 고소인	범죄 행위, 징계, 처벌, 무책임한 행동, 인정, 혐의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징계와 처벌 강조 • 가해 선수의 인정 및 반성과 사과 • 적극적인 대응과 진실된 사과 요구 • 가해 선수의 혐의 부인 및 법적 대응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제보인, 피의자	힘든 시간과 아픔, 고통, 사과 요구, 허위 학교폭력 의혹 폭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한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이유로도 학교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안다”며 “이에 책임지고 은퇴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연락이 닿아 사과의 마음을 전한 친구도 있지만, 아직 연락 드리지 못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송원형, 조선일보, 2021.02.23.).

작성자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새까맣게 잊었나 보다.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라고 덧붙였다(김용현, 국민일보, 2021.02.11.).

가해 선수는 청소년기 시절 학우였던 피해자를 괴롭혔고, 가해 선수가 스포츠 스타가 되자,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발하였다. 가해 선수를 향해 미디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TV프로그램이 공개되며, 여론의 질타와 못매를 피할 수 없었고, 가해 선수와 피해자의 갈등은 심화 되었다. 언론은 가해 선수가 사과문을 공개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징계 및 처벌을 받는 등을 전달함으로써 스포츠 선수로서 사회적 인식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수의 책임감의 무게를 상징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가해 선수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 가해 선수가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또 다른 갈등을 제기하였고, 이는 고소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결국 가해 선수

로 지목된 스포츠인은 누명을 벗기도 했으나, 사실 규명에 앞서 학교폭력 논란의 언론 보도가 확대와 강조하였고, 이미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스포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따라서 언론은 가해 선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의 도덕성과 스포츠 문화의 폐쇄성을 강조하여 스포츠윤리 의식을 주장하였고, 선수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책임을 강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2)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대립구조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해 선수로부터 징계 및 처벌이 가해지며, 가해 선수들은 소속 구단으로부터 퇴출당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제3의 구단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가해 선수의 복귀를 위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갈등관계에 따른 대립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에 따라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가해 선수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가해 선수가 속했던 구단은 징계와 처벌을 부여하였고, 징계와 처벌을 마친 가해 선수는 복귀를 시도하였다. 가해 선수의 새로운 구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제3의 구단과 여론의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해당 주체에 대한 지시적 표현과 내재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립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 4.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대립구조와 의미

구분	지시적 표현	내재적 의미	대립적 의미
제3의 구단	소속 구단의 실명, 감독 실명	복귀 가능성 제기 선수 영입의 눈치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선수들에게 실효성 있는 징계 촉구 • 학교폭력 선수의 징계 해지 여지 제기 • 가해 선수 복귀설에 비난과 책망
여론	여론, 대중, 팬	책임에 징계 촉구 숨방망이 처벌의 싸늘한 팬심	

〈표 4〉에 따라 언론은 가해 선수의 복귀에 대해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의 구단은 가해 선수의 복귀를 시도하는 듯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가해 선수의 복귀설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에 가해 선수의 빠른 복귀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체육계와 구단, 가해 선수를 비난함으로써 대립적 의미가 생산되었다. 제3의 구단은 지시적 표현을 소속 구단의 실명 혹은 감독 실명으로 표현하였고, 여론은 여론, 대중 혹은 팬으로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스포츠에서 구단과 팬은 서로 상호소통하고, 공생관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이라는 반인권적인 사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3의 구단의 복귀 시도는 스포츠 팬과의 갈등을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의 구단은 가해 선수의 복귀를 위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듯한 내재적 의미를 표출하였고, 여론은 책임에 따른 징계를 촉구하고, 가해 선수의 빠른 복귀에 따른 체육계 숨방망이 처벌에 비난과 책망을 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은 체육계가 가해 선수들에게 실효성 있는 징계를 촉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제3의 구단은 본 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도 가해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생각은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 조직 내 구단과 감독의 입장과 여론의 상반되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고, 각 주체 간의 내재적 의미와 대립적 의미가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페퍼 김○○ 감독은 “저와 먼저 얘기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이 선수 의견을 타진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한다. 다른 구단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영입을 원하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감독 역시 이○○을

영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이정호, 경향신문, 2022.10.19.).

‘팀컬러가 젊은 선수들의 패기? 진짜 사람 패는 선수를 데려오면 어찌나’ ‘학교폭력 가해자, 팬들과 화해? 팬들은 화해할 생각 없다’ ‘여자배구는 죽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었다(최혜승, 조선일보, 2022.10.19.).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스포츠를 응원했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가해 선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이적을 하거나 복귀를 위한 준비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되었다. 이에 여론은 가해 선수의 복귀설에 대해 비난과 책망을 하였고, 복귀를 시도하는 구단에게도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가해 선수가 저지른 학교폭력의 파장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구단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해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이에 경향신문(이정호, 2022.10.19.)은 가해 선수의 실력과 재능, 과거 선수로서 각광 받았던 시절을 제기하며,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고 밝혔고, 제 3의 구단의 행보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고 보도하는 한편, 조선일보(최혜승, 2022.10.19.)는 제3의 구단을 향한 여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여론은 가해 선수의 복귀설이 제기되자, 복귀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 항의, 제3의 구단에 화환을 보내는 등의 반응을 엿보였다. 언론은 제3의 구단의 무리한 행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새롭게 창단된 구단이라는 점과 최하위 순위 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 선수의 충분한 반성과 자숙 없이 빠른 복귀 시도는 여론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초래한다. 더욱이 체육계가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표하고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복귀를 시도한다는 점, 전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및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교폭력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옹호와 반대 입장 간의 대립구조

언론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 30인이 구성되었고, 그 중에서 지난해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특정 선수가 학교폭력 전력으로 대표팀 명단에 제외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포츠계 세간의 이슈가 되었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가해 선수를 놓고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가해 선수는 소속 협회 측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아온 바 있으며, 소속 구단은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모두 이행했다. 또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특정 선수는 성적과 실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단연코 국가대표 선발감 1위 후보였으나, 학교폭력의 전력이 있는 가해 선수를 출전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에 언론을 통해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며, 갈등을 통해 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표 5〉과 같이 언론은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옹호 입장과 반대 입장을 보도함으로써 두 쟁점이 대립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옹호 입장에서 지시적 표현은 A급 투수, 제2의 박찬호, 국가대표급 투수, 메이저리그 투수, 에이스 등으로 표현하였고, 반대 입장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와 선수 실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 선수를 대상화함으로써 지칭하는 두 입장의 갈등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옹호 입장에서의 내재적 의미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 투수와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의 실력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일이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의 내재적 의미는 가해자 혹은 범죄 행위를 한 선수로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립적 의미는 가해 선수에 대해 시대가 원하지 않은 선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대립 되는 의미로 어릴 때 잘못에 대해 반성과 징계 및 처벌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선수의 출전을 막는 것은 가중 처벌에 해당되고, 불합리한 대우라 주장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혹한 처벌일수록 교육적 사례가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반면 대조 되는 입장으로 우리나라는 재능 있는 선수를 위해 국외로 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주체 간의 지시적 표현과 내재적 의미 그리고 대립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두 주체 간의 대립구조와 그 의미를 통해 갈등구조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옹호와 반대 입장 간의 대립구조와 의미.

구분	지시적 표현	내재적 의미	대립적 의미
옹호 입장	A급 투수, 제2의 박찬호, 국가대표급 투수, 메이저리그 투수, 에이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최고의 실력자, 불합리한 대우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가 원하지 않는 선수 강조 • 어릴 때 잘못에 대한 반성과 징계 처벌 수행과 가중 처벌, 불합리한 일이라 주장 •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혹한 처벌일수록 교육적 사례 • 재능 있는 선수에게 기회 제공
반대 입장	학교폭력 전력 선수, 선수 실명	가해자, 범죄 행위,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나가서 박○○ 선배님 다음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인데 저도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했다(양다훈, 세계일보, 2023.02.27.).

박○○는 14일(한국시각) 키움히어로즈 스프링 캠프를 방문해 관련 질문을 받고 “대표팀 세대교체가 잘 된 것 아니냐. 안○○이 있다고 세대교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안○○은 아직 아닌 거다. 지금 시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문지연, 조선일보, 2023.02.15.).

MLB파크 등의 커뮤니티에는 “징계까지 받았는데 한번 낙인찍히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인 사회가 안타깝다” “안○○을 뽑지 않은 건 기준이 없는 국민정서법 때문 아닌가” 등 추○○의 의견을 옹호하는 댓글도 일부 올라왔다(박선민, 조선일보, 2023.01.24.).

이처럼 대립구조와 그 의미를 통해 옹호 입장은 가해 선수의 존재적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스포츠 선수로서의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반대 입장으로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전력을 비판하여 재능과 실력을 떠나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 선수로서의 소명, 책임 의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은 법조계의 주장을 빌려 특정 가해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국내의 국민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언론은 한 스포츠 스타가 가해 선수를 두둔함으로써 가해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부족한 관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느껴진다는 보도를 내었고, 더욱이 두둔한 스타의 범죄 전력까지 파헤치며 윤리적 잣대가 저조한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해 반감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옹호자들은 선수의 재능과 실력에 따른 기능적 측면은 각광 받고 있었고, 반대자들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못매와 질타를 받음으로써 갈등을 양산하고 있었다.

3. 선수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한 함축적 의미: 신화 분석

Barthes의 신화는 기호의 함축 의미를 특수화시킨 개념이라 볼 수 있다. Barthes의 신화는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문화가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호 연결된 부가 의미적 개념의 연쇄이다(전병준, 정정호, 2022). 따라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수의 학교폭력 보도의 함축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신화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신화 자체의 내용보다는 신화가 자연화되는 2 단계에서 기표가 신화로 변형되는 과정의 의미작용을 실행하였다(Fiske, 1990). 기표와 기의 간의 외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1차적 의미작용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시적 의미인 2차적 의미작용을 실시하였다.

1) 스포츠 속 피해자의 아나키즘

본 연구는 스포츠 속에서 아나키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나키즘이란, 소위 무정부주의라고 불리우며, 국가권력, 종교, 정치적 지배 등 어떠한 영역에 지배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함축적인 의미는 스포츠라는 소사회에서 권력과 정치적 지배에 억압된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폭로를 통해 아나키즘을 주창한 것으로 살펴보았다. 즉, 아나키즘의 정치 철학적 사상을 빚대어 스포츠 속 학교폭력을 피해자를 표현하였으며, 스포츠 내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과 권력으로부터 스포츠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학폭투 운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스포츠계 전반적인 학폭투 운동의 반향을 일으켰고, 피해를 입은 신고자가 속출하는 사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스포츠는 팀을 형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스포츠팀이 하나의 소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 속에 특정한 문화가 형성된다(이상구, 강효민, 한광령, 2007). 스포츠 팀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신념, 가치 등 문화가 있고, 팀 구성원들은 팀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조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탈문화적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그 집단 내에 생존할 수 없게 된다(이상구 외, 2007). 스포츠는 제로섬사회 문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선수를 기계로 간주하며, 모든 가치는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어 스포츠의 문화는 위계질서, 군대식 문화에 따른 폭력이 내면화 되는 현상과 되물림 되는 풍토가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입었을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도와 2022년도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의 신고 인식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대학 학생선수 인권상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7.7%가 폭력을 경험하였고, 그 중에서 84.6%가 참았다고 밝혔다.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에 대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가 69.9%,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가 39.5%,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체념한 사람이 36.5%라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또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인식은 ‘아무런 행동을 못함’,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등 거의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국가인권위원회, 2022), 폭력 피해에 대해 고통스러움을 느낄수록 다수의 학생이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화라는 인식에 동조한다. 이로써 폭력 피해자들은 운동부 문화의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폭력을 당했을 당시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창시절 당한 학교폭력을 십수 년이 흐른 뒤 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아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형법』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며,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 볼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즉, 고교를 졸업한 이후 학교폭력 혐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사법기관에 공소시효 내 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마저도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식과 달리, 최근 피해자들의 신고 사례가 증가하는 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한몫했다. 일례로,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한순간에 사회적 정화와 더불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였다(김종두, 2018). 2018년 한 검사가 뉴스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을 계기로 검찰계를 비롯해 정치계, 문학기계, 영화계, 스포츠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국내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다. 이 같은 여파로 인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미투 관련 상담이 전체 성폭력 상담 1,189건 중 181건(15.2%)에 해당되었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상담의 3분의 1이 미투와 관련된 상담으로 보고될 만큼 미투 관련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김보화, 2019).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쇄신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피해자의 신고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스포츠선수가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대중의 인기가 막중한 역할을 한다. 스포츠 스타들은 제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팬이 등을 돌린다면, 선수와 스포츠는 설 자리가 없다.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 무죄를 입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한 번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낙인찍힐 경우,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불가능하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최선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개 “나를 괴롭힌 학폭 가해자가 TV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노출될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며,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그들이 활동을 중단하기를 학수고대한다(김소리, 2021.03.09.). 실제 몇몇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들은 폭로로 인해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다(김소리, 2021.03.09.).

스포츠의 학교폭력 논란의 피해자는 대부분 선수 출신이었다. 피해를 고발했을 당시 이들은 모두 선수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이었고, 그에 비해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으나, 선수로서 고액연봉에 스타덤에 오른 가해 선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질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Zurriaga et al (2018)은 연구 결과, 사회적 공동체 속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 라이벌 의식과 질투심이 높으며, 사회비교 지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질투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 위치나 능력 등을 명확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성을 지녔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타인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이성준, 이효성, 2016). 이는 피해자의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신고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왔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과거의 문제가 지금에서야 이슈화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역시 과학기술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윤리적 의식 수준 향상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Z세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호 관계 형성 및 정보 공유를 하는 데 주로 사용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큰 만족도를 느낀다(Shin et al., 2021).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높은 수준의 자기 노출을 보임으로써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Shane-Simpso et al., 2018). 이렇듯 스마트 폰이 발달 되지 않은 과거와 달리,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SNS가 보편화됨으로써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사생활 노출이 자유로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감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의견 표명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학교폭력 전력을 가진 유명인에게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 6. 스포츠 속 피해자의 아나키즘의 상징적 기호체계.

	기표	기의
외시적 의미 (1차 의미작용)	고통, 피해, 괴롭힘, 가혹행위, 선수단 기강, 잘못된 방식, 엄격, 인정, 자숙, 반성, 사과	과거 학생선수의 운동부 문화에 따른 도의적 책임,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공시적 의미 (2차 의미작용)	기호로서 형식	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가해 선수의 사필귀정(事必歸正)	조직 내 윤리적 문제의 사회적 문제로 확장
신화	스포츠 속 피해자의 아나키즘	

또한 과거 스포츠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감추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구단 혹은 협회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유포한 피해자를 조직에서 제명시키곤 했다. 이러한 대응이 통했던 이유가 ‘국위선양’이라는 스포츠의 목표에 따라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좋은 성과를 달성했기에, 대중은 ‘선수가 운동만 잘 하면 됐지’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강호순, 유명철과 같은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사건, 아동 학대 사건, 성착취물 유포 사건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적으로 윤리가 결핍되어 있다. 윤리적 민감성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여론은 본질적 문제인 스포츠계 조직적인 풍토보다 가해 선수로 타켓을 집중하여 강력한 처벌과 응징을 촉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스포츠계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 선수만의 문제인가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은 개인의 윤리 인식과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스포츠 문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폭력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스포츠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단순히 개인만의 스포츠 밖으로 퇴출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사회·환경·문화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

스포츠는 사회 속 규율과 규칙을 깨뜨리고, 사회 속에서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스포츠 경기로써 실천하는 속성을 지녔다. 가령,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폭력적 행위가 스포츠 내 합법적 규칙으로써 폭력 자체를 기술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라는 가상에서 인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격투 스포츠를 비롯해 칼싸움을 하는 펜싱, 총을 쏘는 사격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스포츠 경기는 스포츠의 규칙과 제도, 문화 등이 일반 사회와 판이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스포츠는 경기 중 발생하는 몸싸움을 하나의 암묵적인 규칙으로써 용인하거나, 승리를 위한 전략적 반칙 등이 있으며, 이는 사회 속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규범이다. 특히 야구에서 보복성 폭력으로 수행하는 빈볼은 ‘게임의 일부’ 혹은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선수들의 몸싸움을 용인하는 아이스하키는 더욱이 적을 제압하는 행동대장이라고 불리는 선수까지 있다(박성주, 2015). 또한 빙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몰아주는 경기 전략으로 페이스메이커는 불문율에 따라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역시도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스포츠와 일반 사회가 간극이 존재하듯이 스포츠 속 윤리적 잣대와 일반 사회의 윤리 인식이 달리 작용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화 분석을 통해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도출하였다. 상대주의란,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없고, 울

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창한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각 지역의 문화나 관습 도덕적 기준이 다르며, 도덕적 원리가 사회의 목적, 신념, 역사, 환경에 의존하는 맥락 속에 이루어진다. 이 같은 문화가 달라지는 데에는 스포츠의 상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스포츠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 인구율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은 꿈나무 선수로 발탁되어 대표선수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현 국가대표 선수 중 꿈나무 출신은 12.7%, 청소년 출신은 15%에 불과한데, 이처럼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의 연계성이 부족한 데에는 선수의 중도 포기 문제가 한몫하기 때문이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국외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국내 선수의 인구율은 스포츠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습성을 조장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달리 말하면, 구단에서 윤리적 문제가 적발되어 선수가 퇴출하게 됐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한 번 가해 선수로 낙인 찍힌 가해자와 그 소속 구단은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구단을 위태롭게 한다. 예컨대,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던 시기에 대구FC 소속 선수 2명이 헬러윈데이에 예방수칙을 어기고, '노마스크'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것이 적발되어 그 해 시즌 잔여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장보인, 2021.11.02.). 소속 구단 측은 "일부 소속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시즌 중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구단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선수 교육을 강화하고 선수단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장보인, 2021.11.02.). 이 사건 이후 일 년 만에 또 다시 대구 FC의 둘러싼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과거 대구FC 소속 선수였던 가해자가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였고, 이는 피해자의 국민청원에 의해 공론화되었으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프로스포츠는 대중의 인기와 정부 및 기업 간의 자본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조직과 소속 선수의 이미지는 스포츠 윤리적 문제와는 상호작용하는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휘말린 구단은 이미지 실추와 팬들의 실망감을 통해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구단 자본의 손해로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 전력에는 두 가지 쟁점이 언론 속에 존재하였다. 먼저,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전력은 잘못된 행위이며 반성하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미 오래전에 처벌을 받았고, 학창시절의 실수로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대우라는 것이다. 가해 선수는 과거 학교폭력 전력으로 구단과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 선수였다는 이유로 WBC 대표 선수 선발에 탈락하였다. 더군다나 가해 선수를 옹호하는 입장은 운동부 문화의 일부로 훈계와 기강을 잡는 정도의 폭력이었으며, 과거에는 이 같은 폭력이 허용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이 실리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WBC 경기 결과가 저조하였기에,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의 탁월성을 가진 가해 선수가 합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수의 재능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선수들은 해외로 진출해야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스포츠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 결과에 따른 승리는 다른 가치들을 중국에 이해시켜주는 가치이며, 모든 스포츠의 본질적인 목적이다(Gaffney, 2015). 승리라는 목적 없이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으며(Gaffney, 2015), 스포츠와 선수의 인식 체계는 승리와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스포츠 속 인식 체계와 윤리적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상징적 기호체계

	기표	기의
외시적 의미 (1차 의미작용)	재능, 성적, 전력 손실, 합류, 복귀, 문제 방지, 국민 정서	가해 선수의 악마적 재능,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
공시적 의미 (2차 의미작용)	기호로서 형식	
	가해 선수의 국가적 손실과 윤리 문제에 예민한 국민의식의 갈등	상이한 스포츠윤리 기준과 일반사회 윤리 기준
신화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	

또 다른 주장은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전력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며, 징계와 처벌을 전부 이행했다고 해서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여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시시비비(是非非非)는 피해자가 판단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는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었고, 가해 선수가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해서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두 가지 논점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와 환경 그리고 윤리 인식이 사회 속 윤리 인식과 간극이 존재하여 두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가해 선수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보다 스포츠 속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이해가 필요해 보이며, 스포츠 마찬가지로 잘못된 문화와 풍토는 이를 인식하고 쇄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의 언론 보도를 기호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Saussure와 Barthes의 이론으로 기호학적 분석하여 언론 속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합체 분석(syntagme)을 통해 전개 과정을 시간적 흐름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사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열체 분석(paradigme)을 통해 주제 간의 대립구조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물을 토대로 신화적 분석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합체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서사구조는 발단 및 전개를 시작으로 절정, 결말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건 논란’을 시작으로 ‘징계 및 처벌’, ‘은퇴 및 복귀’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발 혹은 신고 형태로 사건이 발단되었다.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었고, 반복적 보도됨으로써 가해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강조 및 확대되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에 소속 구단과 연맹 측의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언론은 가해 선수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 하였다. 이후 언론은 가해 선수의 복귀 및 이적 활동을 주시하는 보도를 하였고, 동시에 체육계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공표하는 보도가 이루어졌다.

둘째, 분석된 서사구조를 토대로 이항대립구조를 파악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를 비롯해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대립구조’,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옹호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대립구조’로 나타났다. 가해

자와 피해자 간의 대립구조는 피해자가 가해 선수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가해 선수의 처벌 및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가해 선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이항대립구조가 생성되었다. 제3의 구단과 여론 간의 대립구조는 제3의 구단을 통해 가해 선수의 복귀를 시도하는 반면, 여론이 가해 선수 복귀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표출하면서 이항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가해 선수의 옹호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대립구조는 학교폭력 전력의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가해 선수를 놓고 가해 선수의 가혹한 처벌일수록 교육적 사례가 될 것이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를 옹호하는 입장 간의 이항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신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축적 의미는 ‘스포츠 속 피해자의 아나키즘’과 스포츠와 일반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 당시 고질적인 스포츠 문화의 풍토에 의해 신고할 수 없었으나, 오늘날 아나키즘적 행위를 표출함으로써 학폭투 운동과 같은 반항을 일으켰다. 오늘날 피해자가 신고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쇠퇴와 각광 받는 선수의 몰락으로 간주 된다. 더욱이 스포츠계 폭력 사안은 오랫동안 언론에서 다루어졌지만, 오늘날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슈화가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윤리적 의식 수준 향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제도, 규범, 문화 등 일반 사회와는 상이한 형태를 지니며, 이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적 측면에서 가해 선수를 바라보는 입장과 일반 사회 측면에서 바라보는 가해 선수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두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가해 선수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스포츠 속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지가 요구되며, 스포츠 역시 고질적인 문화와 풍토를 쇠퇴시키고 현대사회의 잣대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성적과 팬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개입은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창섭, 남상우, 2009). 언론은 스포츠의 성적, 기록, 경기 명장면, 의미, 사건과 사고 등 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와 대중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언론은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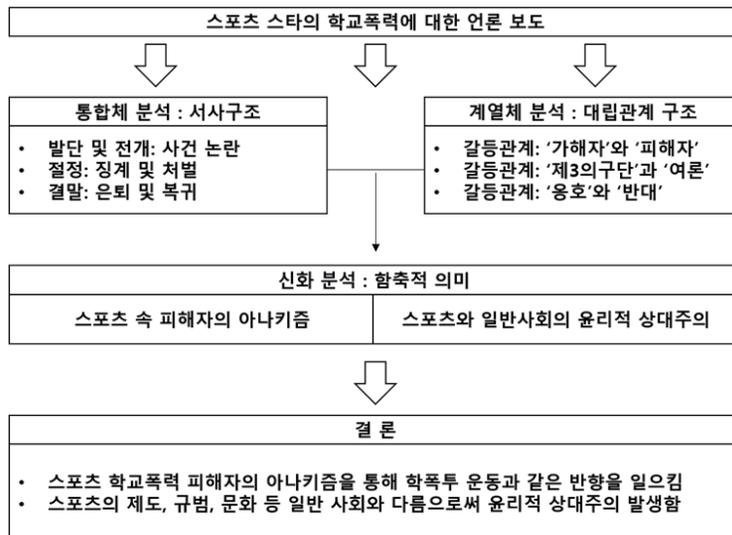


그림 3.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기호학 분석 시각화

다소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그러한 이유에는 스포츠계의 꾸준한 윤리적 사고와 실효성 없는 정책 등이 여론의 적대적 인식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이 스포츠계에 벌어졌을 때 사건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기 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 요소로 매체에 의존하던 스포츠가 부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여지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이 내재한 함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의 이데올로기를 고찰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화와 풍토를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스포츠윤리와 스포츠 폭력 문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12.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12.09.). 형법[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국가인권위원회(2010).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2022). 비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김경용(2007).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규리(2021.02.17.).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국연예스포츠신문. <http://www.korea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802>
- 김보화(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19(2), 3-43.
- 김소리(2021.03.09.). 스포츠·연예계 강타한 학폭, 법적 진실 규명 쉽지 않은 까닭. 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4927
- 김용은, 김준(2021). 언론의 스포츠 선수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3), 69-86.
- 김용은, 나동규, 김주희, 남미경, 김범식(2013). 스포츠 영화 <코리아>의 재현된 이미지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1), 167-184.
- 김용은, 도은나(2020). 해외 진출 선수의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신문보도의 함축적 의미분석: SON에서 손흥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1), 57-76.
- 김용은, 문보라, 김범식(2014).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빅토르 안 신문보도의 의미 해석: 안현수에서 빅토르 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2), 77-102.
- 김용현(2021.02.11.). 꼬리문 ‘악재’ 여자프로배구 뒤숭숭.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198&code=12140000>
- 김은형(2023.03.15.). 연진아, 우리 ‘오징어게임’ 하자... ‘더 글로리’, 글로벌 1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83652.html
- 김정효(2023). 한국 프로야구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1(1), 27-37.
- 김종두(2018). 미투운동과 성(性) 문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5), 131-145.
- 김지영(2010). 스포츠영웅에 대한 한·일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 인문콘텐츠, 17, 219-251.

- 김희경(2010). 영화<아바타>의 이항 대립 구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471-496.
- 남상우(2021). **4판 스포츠사회학 Social Issues and Debates in Sports**. 대전: 궁미디어.
- 문보라, 최문정, 서원재(2015). 여성 스포츠 스타 TV광고의 기호학적 의미와 이데올로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8(4), 43-65.
- 문지연(2021.02.16.). “이재영·이다영·송명근, 지도자 자격까지 다 박탈”. 국민일보.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 문지연(2023.02.15.). “안우진 있어야 세대교체냐”…박찬호, 추신수 논란에 던진 한마디.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5/YP7IREOZUNDUNKNVAVSSNO7OMQ/?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박선민(2023.01.24.). 추신수 지지한 안영명 “파장 예상하고도 솔직 발언, 진짜 선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24/TQEHSOQNEZDTLJCMWQQ-5JG34QQ/
- 박성주(2015). 스포츠 속 폭력적 보복행위 정당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1), 85-101.
- 백선기, 손돈(2012). TV광고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의 여성성과 이데올로기 : 김연아와 장미란 광고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3, 199-239.
- 서필웅(2021.02.15.). 닷새 만에 징계 받았지만... ‘프로배구 학폭’ 일파만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5514685>
- 세계일보(2021.02.13.). 프로배구, 이번엔 남자부에서도 학폭 의혹.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3505616>
- 세계일보(2021.02.15.).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5502753>
- 송원형(2021.02.23.). 男배구 박상하 은퇴선언 “학창시절 친구·후배 때린 것 맞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22/Z2NX2NCJ45H5VOX3-WZVTRZFRJE/?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송치만(2005). 스포츠 경기에서 시뮬레이션 반칙의 기호학적 고찰. **한국불어불문학회연구**, 64, 711-727.
- 송치만(2009). 스포츠 주체의 서사행로 연구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6, 203-224.
- 송치만(2010). 스포츠 스타 광고의 기호학적 연구 -《김연아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7, 329-352.
- 송치만, 김진휘(2019).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호-서사학적 연구 : 다큐멘터리 <우리는 하나다>를 중심으로. **통일민문학**, 6, 31-59.
- 송현경(2021.04.07.). [문화체육관광부-학교폭력] 선수 간 학폭 대책 마련… 선발·대회참가 제한.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2247
- 안선경(2002). TV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 연구**, 17.
- 양다훈(2023.02.27.). ‘소신 발언’ 논란에 추신수 “사람 생각·경험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7518844>

- 이경숙(2016). 소쉬르의 언어기호론에서 본 댄스스포츠의 표상성. *한국체육과학회지*, 25(6), 25-35.
- 이동환(2021.02.22.). 삼성화재 박상하, 뒤늦게 학폭 인정 후 은퇴 선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1762&code=61161911>
- 이상구, 강효민, 한광령(2007). *스포츠 사회학 현대사회의 키워드 스포츠 읽기*. 서울: 대경북스.
- 이성준, 이효성(2016). SNS에서의 개인의 사회비교 경험 유형 및 사회비교 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74-590.
- 이세영(2021.02.10.). *女배구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 “부모 욕하고 칼로 협박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10/WQA4H7P5KBBBERGMBKCNVLW6J74/?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이정호(2022.10.19.). *폐퍼 ‘이재영 면담’ 논란...김형실 감독 “자충수 들 이유 없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sports/basketball-volleyball/article/202210192219025>
- 이창섭, 남상우(2013). *세 번째 이야기 스포츠사회학 Social Issues and Debates in Sports*. 대전: 궁미디어.
- 임재문(2010).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기호학자 소쉬르와 바르트의 이론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지*, 23, 152-159.
- 장보인(2021.11.02.). *대구FC ‘노마스크’로 헬러윈 즐긴 선수 3명에 출전 금지 징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56300007>
- 장승현, 이근모, 이남미(2010). 종합격투기경기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의 상징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129-144.
- 전병준, 정정호(2022). 지상파 방송 3사 로고 디자인에 나타난 신화 분석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20(3), 201-212.
- 정승원(2017). *청와대는 건물 이름이 아니다-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경기: 도서출판 들녘.
- 정재빈(2022.10.28.). *국내 복귀 추진 이재영, 학폭 피해자에 연달아 법적 대응*.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20/EC2NTH5EPVCFDA6MSXBPPXXRNY/?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최형창(2021.02.11.). *‘학폭’ 논란에 미스트롯 진달래는 하차... 이재영·이다영은 어떻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1504529>
- 최혜승(2022.10.19.). *이재영 복귀설에...팬들“젊은 패기? 진짜 패는 선수 데려오면 어찌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19/V7X6FPM4NJGGBNRBMOD3ZZNG2M/?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하오화웨이, 쉬자오이, 팡시, 최원호(2022). 탄막 영상의 기호학적 전파 : 롤랑 바르트의 신화를 중심으로. *영상기술 연구*, 40, 183-203.
-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2021한국언론연감*.
- Barthes, R. (1981). 2 theory of the text. *Untying the text: A post-structuralist reader*, 31.
- Coakley, J. J. (1990).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No. Ed. 4). CV Mosby Company.

- De Saussure, F., & Sechehaye, M. A. (196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dited by Charles Bally and Albert Sechehaye in Collaboration With Albert Riedlinger. Translated, With an Introd. and Notes by Wade Baskin. McGraw-Hill.
- Fill, C. (1995). *Marketing communications: frameworks, theories and applications* (pp. 116-135).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iske, J. (1990). Ethnosemiotics: Some personal and theoretical reflections. *Cultural Studies*, 4(1), 85-99.
- Fiske, J. (201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Routledge.
- Gaffney, P. (2015). The nature and meaning of team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42(1), 1-22.
- Holden, A. C., Neville, P., Gibson, B., & Spallek, H. (2021).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tooth: A semiotic and thematic analysis of oral health and disease in the TV show 'Embarrassing Bodies'. *Health*, 25(6), 739-756.
- Jonathan Culler (1998). 이종인 역 『소쉬르(시공로고스총서3)』. 서울: 시공사.
- Shane-Simpson, C., Manago, A., Gaggi, N., & Gillespie-Lynch, K. (2018). Why do college students prefer Facebook, Twitter, or Instagram? Site affordances, tensions between privacy and self-expression, and implications for social capita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6, 276-288.
- Shin, S. A., Jang, J. O., Kim, J. K., & Cho, E. H. (2021). Relations of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self-expression satisfaction, and SNS Use satisfaction of Gen Z through SNS activ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2), 11979.
- Zurriaga, R., González-Navarro, P., Buunk, A. P., & Dijkstra, P. (2018). Jealousy at work: The role of rivals' characteristic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9(4), 443-450.